

브루스 월트키 박사, 시편, 강의 22

© 2024 브루스 월트케(Bruce Waltke)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Bruce Waltke 박사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2, 전례적 접근 방식, 대관식 시편, 시편 110편입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언약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워 왔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끄소서.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피와 물과 말씀과 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좋아요, 우리는 시편에 대한 전례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로 전례 대신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교의 외적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컬트의 기능과 컬트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우리에게 신성한 인사를 주고 우리에게 신성한 제도와 신성한 계절을 준 예배에 대한 대본으로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았습니다.

David는 그 모든 것을 오페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모세가 백성에게 행한 의식에 수반되는 대본이었습니다.

시편에도 음악이 붙었습니다. 성전은 천막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윗이 모차르트와 같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의식을 오페라로 변화시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전례적 접근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시편 한두 편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왕이 시온 산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 시편과 대관식 예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편 2편을 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을 하늘의 상징인 시온 산에 세우셨습니다. 시편 110편에는 왕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내용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의 노트에는 페이지 번호가 없지만 284페이지에 또 다른 대관식 시편인 시편 110편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편은 매우 중요한 시편이며 아마도 신약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시편일 것입니다. 시편 110편의 한 절이 세 번 완전히 인용되었는데, 이는 신약성경에서 시편 전체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으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문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마를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로마에 항복한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황제의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분이 누구이든지 그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그렇다고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면 바리새인들이 헤롯당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로마에 고하고 예수가 세금 내기를 거부하므로 반역죄로 고발하려 함이니라 카이사르, 로마인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그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그가 국가에 충성하지 않고 로마에 복종하여 멍에를 벗어버리고자 한다고 백성들에게 고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동전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곧 동전 곧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네 마음이나 네 인격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그 후 그는 사두개인들에게 시험을 받았고 그들은 부활에 관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인 일곱 남자를 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순차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이 일곱 남자, 즉 일곱 형제와 순차적으로 결혼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의 아내 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부활 때에는 우리가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혼하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경만 받아들였고 구약의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구약성경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직 살아 있다고 주장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두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상황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메시야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 메시아를 기꺼이 허락했지만 신적인 메시아, 신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밀어내십니다.

그러면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주님께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윗은 주님께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고 다윗이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보다 더 큰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큰 이가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식별하는 기독교론, 즉 그가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에 있어 매우 기본입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반복됩니다. 이것은 시편 2편과 함께 첫 번째 설교에서 다시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위대한 설교에서 그가 오순절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그는 교회가 우주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설교에서 전체 본문이 인용됩니다.

그리고 물론 히브리서의 오른쪽에는 죄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높은 데서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의 기업을 많이 받으셨으니 이름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도다. 그리고 천사 중 누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의 우파는 이 두 시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함께 묶습니다. 물론 히브리서는 시편 110편과 4절의 전체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서에게 당신은 멜기세덱과 같은 반차와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멜기세덱과 같은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히브리서 7장의 전체 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멜기세덱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은 시편 110편에 나와 있으며 신약성경에 퍼졌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이렇게 3~5번 인용된 구절 전체입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에는 다른 어떤 시편보다 시편에 대한 암시가 25번이나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약의 기독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또한 발견되었고, 나는 또한 마가복음 14장이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284쪽 하단에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64절까지 인용하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메시아냐? 이에 예수께서는 “내가 그러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고백에 대제사장은 대답하기를,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훼방을 너희가 들었느니라”고 대답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한 고백은 곧장 십자가형으로 이어집니다. 285페이지에서 나는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 그리고 베드로가 쓴 서신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편의 중요성과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의 논증의 기초를 놓은 세 편의 시편 중 하나와 그리스도에 관한 그의 기독론이 이 시편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서에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이 아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속적 중보를 기념하는 초기 찬송이었을 것이라는 교회의 초기 고백의 일부로 읽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골로새서 3장 1절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하늘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세례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 후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엿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에서는 그분을 경배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왕국을 외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뛰어나 하늘 영역의 우편에 앉히셨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신학 전체가 신약 기독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는 아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례의 맥락일 것입니다. 그분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늘에 오르사 천사들과 권세들과 권세들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를. 교회에서 이 시편 기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 즉 사도신경을 통해 그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일곱 번째 신앙고백을 통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매주 일요일 고백 중 하나를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시편 110편에 있는 이 동전의 주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회 역사에서 종종 그것은 승천 주일 등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시편이 교회사, 즉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시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자체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다음 페이지인 28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편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시편인 윗침자의 중요성과 다윗이 누군가에게 자신이 그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다윗의 주님이 될 수 있습니까? 즉 다윗은 그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왕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이 왕 다윗은 자기보다 훨씬 더 크신 분, 곧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홀 곧 주의 권능의 홀을 보내시나이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당신의 적들 가운데서 통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견적 끝.

당신의 권능의 날에 당신의 백성이 기꺼이 자신을 바칠 것입니다. 아침 태중의 거룩한 옷을 입고 네 청춘의 이슬이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는 맹세하셨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나는 이것을 멜기세덱처럼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님은 당신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부수실 것입니다. 그는 열방 가운데에 심판을 집행하여 그들을 시체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가 온 땅의 머리를 쳐부수겠고, 온 땅의 머리들과 족장들을 쳐부수리라.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들 것이다. 하지만 그 형식에 대한 소개 방식은 분명히 우리가 시를 다루고 있고 시는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아침 이슬에 비유됩니다.

왕의 승리는 그의 승리에 비유되고, 그의 인내는 길가에 있는 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가득해요. 병렬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시편이다. 현악기 반주에 맞춰 노래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언적 발언의 영감을 얻기 위해 음악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대관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이르시되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시매

그리고 역사적 왕을 왼쪽 눈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을 때입니다. 나는 그가 왜 그 층에서 그의 오른편에 앉았는지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땅을 심판하실 권세의 자리에 계시며,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대관식 예식 역시 아시리아의 대관식 시에서 지지를 찾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전에 달라스에서 가르쳤고, 케임브리지에서 박사 학위 논문을 썼으며, 시편에서 제의적 예언을 불렀던 존 힐버스(John Hilbers)의 박사 학위 논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110편을 앓수르 왕의 대관식에 관한 예언의 시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로 기원전 675년경 에사르하돈 시대의 문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들 사이의 몇 가지 유사점입니다.

둘 다 1절에서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서문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앓시리아 대관식 전례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둘째, 하위 오라클을 사용하여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와 같이 이 시편에도 여호와께서 두 번 말씀하시되 첫 번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시편 하반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를 그 발등상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너희도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제사장이니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시리아 왕실 선지자의 대관식 전례 에서처럼 우리는 두 부분으로 세분화됩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시리아 대관식 전례에서 힐베르스에 따르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스피커가 바뀌네요.

예를 들어, 이 시편에서 주님은 1절에서 말씀하시며, 내 우편에 앉아 계시고, 2절에서는 다윗이 말하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홀을 시온에서 보내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나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니 선지자가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의 오른쪽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4절에서 왕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에서 왕에게 말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고, 두세 절에는 선지자가

왕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선지자가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설가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신인도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가 5절부터 7절까지에서 너희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대답할 때 선지자가 2절과 3절에서 왕에게 말한 것과 같이 말하노라. 주님은 당신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부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왕에 관해 이야기하고 회중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하는 것에서 회중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런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힐베르스(Hilbers)에 따르면 아시리아의 대관식 예식에서도 연설자가 바뀌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원 의식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대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스피커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시편 2편에서 이 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시편 2편에는 다른 화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열방을 대표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의 멩에를 우리에게서 벗어 버리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니 아마 제사장이리라. 나는 나의 왕을 지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7절부터 9절까지 왕이 말하고 있고, 이어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반대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대표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왕, 그리고 다시 열방을 대표하는 시편 기자의 목소리의 변화로 화자의 변화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사장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에게 직접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브루스 씨, 반응형 독서의 역사와 그것이 후렴 시편을 현대적으로 반영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 그리고 현대가 진짜인가요? 앞으로 이동할 때 현대적인 반응형 읽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시편 찬송을 모방하기 위해 행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모른다. 내 말은, 이러한 대명사에 대한 선행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음성의 변화가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그 사람 등에 대한 선행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종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목소리의 변화가 없으면 듣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후렴이 있고 그것이 전례의 일부였음을 암시한다고 추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반대성이라면 그것은 회중의 참여를 가정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시리아 연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아닌 신과 왕, 도시 사이의 실현을 합법화하기 위해 숫자로 D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들이 그의 발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앗시리아 자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듯이 적들을 멸망시키겠다는 약속도 앗시리아 자료에 있습니다. 우주적 지배에 대한 약속은 아시리아의 예언과 유사합니다. 충성스러운 지원의 존재, 당신의 백성은 당신의 능력의 날에 기꺼이 할 것입니다, 시편 110.3. 거짓말을 거부하는 신성한 약속, 주님께서서는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영원히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의 책임과 왕권의 영원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시리아의 대관식 예식과 예언에서 유사점을 찾습니다. 그를 가둘 수 있을까요? 여기 그의 표시가 있고 괜찮습니다.

좋아요. 미안해요, 표시하고 있었어요. 좋아요.

괜찮은. 이제 우리는 시편의 형식에 대한 배경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시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시편을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아시리아 왕의 대관식에서 대관식 예언과 유사한 대관식 전례라는 형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모두 분명히 포로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이제 시편의 수사법과 그 구조, 논리적 개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선지자의 구분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신성한 인용문에 대한 소개를 갖고 있고, 그런 다음 신성한 인용문을 갖고 내 우편에 앉으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그에 대한 예언적 성찰을 볼 수 있으며, 그는 그의 적들 가운데서 통치할 것이며 그의 백성은 그의 권능의 날에 기꺼이 응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인용문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에일랏-멜기세덱 이후로 영원히 제사장이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의 정복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우리가 교대 병렬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두 부분 모두 다윗의 주님에 대한 예언인 신성한 인용에 대한 소개를 제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 메시야로 칭호를 받았으면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보좌에 앉으라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 우리는 주님이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주님이나 메시아에게 전하는 신성한 인용문에 대한 예언적 성찰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흠을 펴시리로다 그러면 왕은 너희 원수들 가운데서 통치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메시아나 그의 군대가 그가 권세를 나타내는 날에 기꺼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군대는 당신의 전투 날에 거룩한 영광을 입고 자유롭게 자신을 바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아침 태에서 나오는 이슬처럼 네게로 나아오리라. 인용문의 서문인 두 번째 연은 주님께서 맹세하신 취소할 수 없는 맹세이며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창, 당신은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용문에 대한 묵상, 즉 먼저 그는 주님께 주님께서 당신의 오른쪽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미 여기 와서 회중에게 연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가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부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왕을 담대하게 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왕에게 말을 거는 대신 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왕은 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엿듣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 자체가 힘을 실어주고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중에게 설교하는 동안 왕은 그것을 듣고 고백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들은 서로 아주 잘 뭉쳐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온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는 열방 가운데에 심판을 집행하여 그들을 시체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는 온 땅의 족장들을 쳐부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실 것이므로 머리를 들 것이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수사학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학의 구조 중 하나는 교대 구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ABC 소개, 인용, 반영, A 프라임 소개, B 프라임 인용, C 프라임 반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평행한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편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반쪽이 같은 부분으로 나뉘는 것도 흥미 롭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1절부터 3절까지 74단어, 4절부터 7절까지 74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이 3절, 3절, 3절로 이루어진 것처럼 시편에서 그런 종류의 대칭을 얻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종류의 구조와 대칭은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다스리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2부를 보면 David가 쓴 설명과 위첨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메시아가 주님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윗의 자손보다 더 크십니다. 여기서 다윗은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온 땅을 다시 다스릴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될 일을 기대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참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다윗의 저자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연대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아요, 그것은 우리가 말한 시편이고 많은 예언처럼 음악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인용문의 서문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니 영광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있으리로다 우리가 고백하노라. 그리고 나 자신은 전달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즉, 그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나일 뿐이야. 그리고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파생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그 자신으로부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이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편재하심과 전지하심뿐 아니라, 당신만큼 용서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로 말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단어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행위라면 그들은 실제로 말하기 위해 dibber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언급한다면, 그들은 ama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말한 것, dibber를 말하는 행위, 말한 내용을 의미하며 ama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다릅니다. 이 단어는 예언적인 연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지자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움은 실제로 예언적 연설을 가리킨다.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셨으리라. 그때 다윗이 성령으로 어떻게 말하였느냐? 그리고 그는 나움 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신이 성령 안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보통 말이 아니네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나는 이 단어가 선지자들과 함께 사용된 다른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이는 발람이 신탁을 받을 때 사용되었고 시편 18편과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이 아니라 사무엘하 22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이 선지자였으나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 후손 중 한 사람을 왕위에 앉힐 것이라고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음 말로 그는 내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주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그 후 우리는 인용 자체에 이르렀고 그 인용은 그가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오른편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앉는 것은 권위의 자세이다. 모세는 가르칠 때 앉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 위에 앉으셨습니다. 교황은 대성당에서 연설합니다. 그는 의자에서 말한다.

자리(Seat)의 약자로 오는 c주교를 이야기하는데 권위의 자리는 앉는다. 그래서 그가 자기 주님께 말씀 드리되 내 우편에 앉으소서. Trempe Longman이 Westmon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학 교수로 임명되었을 때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자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글썄요, 저는 15세기에 의자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레기우스 구약학 교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의자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은 옥스포드의 구약학 왕립 교수인 Regius 교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그가 앉을 의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의자에 앉았기 때문에 그 교실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귀족의 집에 의자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주위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그에게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자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앉으라 하였으니 이는 권세와 통치의 자리니라.

그런 다음 그는 오른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성전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성전 단지에 있는 것처럼, 성전 단지는 벽 주위에 있고, 전체를 둘러싸는 하나의 벽이 있었습니다. 동쪽을 향한 성전이 있고 남쪽에는 정의의 현관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정의의 현관이 있습니다. 왕은 재판의 현관에 앉아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편에는 언약을 시행하고 규칙을 시행하는 왕이 계십니다. 이것이 제가 오른손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천국 자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공의를 촉진하고 옹호하며 집행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내 우편에 앉은 이가 그가 만유의 심판자시요 하나님 아래 계시다는 것을 내가 가장 잘 이해하노라. 나는 이것이 왜 오른편에 앉는 최고의 권위인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밧세바가 솔로몬 앞에 들어올 때 그는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의 명예를 주었지만 그녀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장 높은 영예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지혜를 발휘하여 다윗의 첩인 아비삭을 그의 아내로 삼고 싶어하여 왕좌를 차지하려는 아도니야의 계략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려고 하였느니라.

이것이 가장 높은 권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가 마신 잔, 즉 남을 위해 죽겠다는 각오의 잔을 즐겨 마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권세의 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른편에는 심판의 장소와 십계명을 집행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나는 291페이지에서 이집트 대관식 전례에 대한 유사점을 지적합니다.

이집트 대관식에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두 번의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전에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전으로 인도되어 왕좌에 올랐고, 그곳에서 다소 위협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통치의 시작인 *Urbi et Orbi*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와 국가에 대한 통치, 도시와 우주에 대한 그분의 보편적인 통치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성취된 모형이라고 이해합니다. 그곳은 오늘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나라를 받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을 부어 그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오늘날 그분의 왕국은 보편적입니다. 거의 모든 언어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지,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말은, 하나님의 영은 그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것 같지만 그것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로마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요 영적 운동은 동남아시아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어요.

전체 복음주의자의 60%가 동남아시아에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유럽 전체와 영어권 세계보다 더 많은 복음주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우 강력합니다.

나에게 흥미로운 점은 너무나 많은 중국 학생들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시대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만 보면 복음이 온 땅에 퍼졌을 것입니다.

영어로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만들 때까지 라고 하면, 그때까지 하면 멈추겠다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그 뜻이 아니다. 계속되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그것이 성취되어 종료되는 지점에 도달한 후에도 그분은 자신의 통치를 영원무궁토록 계속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 발판의 원수를 만들 때까지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사용하여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궁극적으로 시편 92편에서처럼 중심 네 단어를 떠올려 보면, 주님은 높이 계시고 그 뒤에는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신약성경 신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원수를 만든다. 그 원수는 시편 2편과 같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자들, 십계명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우리 대법원은 비극적으로 대다수가 10계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도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대법원 곳곳에 그들이 위반하고 더 이상 지키지 않는 10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생생하고 극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학자들이 중앙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 대법원 모퉁이에서 성전의 도상학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세와 10계명으로 식별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배교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발의 발등상이라 할 때 그 발등상은 실제로 보좌의 일부였느니라. 왕좌와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의 발등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발등상에는 바로의 원수들의 머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묘사된 것처럼 문자 그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발을 얹었고 그들은 그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적들이 발등상에 그려진 것처럼 여기에서 사용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있습니다.

바울은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외국 포로들을 표현한 투카나멘의 발판에 대해 논평합니다. 그들은 손을 등 뒤로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수들이 이미 결박되어 그의 발 아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기 위함입니다.

승자의 입장에서는 경멸과 심판을 의미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치심과 굴욕을 의미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둘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거늘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두셨느니라 이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 두신 하나님 자신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도다. 그러므로 그가 정복할 마지막 적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무덤이 모든 사람을 삼키는 반면, 그리스도의 승리는 사망을 삼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 그 자체보다 더 큰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서두를 살펴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셨다는 인용 자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의 모든 단어를 천천히 읽으면서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용 그 자체, 즉 인용에 대한 성찰에 이르렀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286페이지의 번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내 앞에 286페이지에 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강력한 홀인 시온에서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인용하여 적들 가운데서 다스리십시오.

홀은 권위의 상징이자 휘장이었던 철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시편 2편의 다른 곳에 나오는데, 깨지지 않는 철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그림은 우리가 그를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 점점 더 넓은 원으로 그의 영향력을 확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에스겔 38장에서 개념화되어 언급되고 있으며, 이 왕국이 땅 끝까지 확장되는 땅의 중심으로 개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즉 그는 이 성전을 시작하여 사람들을 자유의 복음, 곧 죄와 죽음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구원을 가져다주는 자유의 율법에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그가 고난당하는 교회를 다스리며 그의 고난을 채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기도, 즉 주기도문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여러 전통에 따라 기도하는 것처럼 일레인과 저는 하루에 서너 번씩 기도하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증거하심을 통해서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십니다. 3절에 보면 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백성들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시편 44편과 같이 군대를 지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군대였지만 패배하여 무너진 것은 성전을 수리한 군대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엔 여기서는 주로 전투에 나가는 젊은 남자들, 젊은 전사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저라는 단어는 자원 제물과 마찬가지로 자원 봉사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군대는 전적으로 자원 봉사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이 단어는 종종 자원 헌금에 사용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장에서 왕을 지원하는 헌신적이고 용감한 전사로 대표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들의 대의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자 그대로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웁니다.

우리의 목적은 육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님과 말이 다스리는 영적인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례로 세계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성전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성전의 법칙은 오직 자원하는 자만이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안이 없었습니다.

장교들은 말하기를 싸움에 나갈 자격이 없는 자를 뽑아낼 때 두려워하거나 겁먹은 사람이 있느냐? 그를 집에 보내주세요. 그러므로 그의 동료 병사들은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의 법칙의 일부입니다.

성전에 참여하려면 대의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며 자원하여 헌금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가져온 방법이며,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리요? 모르몬교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대신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리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은 사람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확실히 그것은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면 왜 순교자들을 대신하여 순교의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공동체의 순교자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죽음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없다면 왜 누군가가 이 군대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Paul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그 구절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달라스에서의 의사 논문에서 두 개의 전치사인 *huper*, *ante* 및 *huper* 에 대해 연구했다고 주장합니다. 둘 다 번역되었으니 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어쨌든 나는 그 구절에 빠져들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쟁이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전장에서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이기거나 잃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쿠르드족 사령관이 ISIS를 시리아 카브나에서 몰아낸 후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우리의 대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대의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대의도 우리가 신뢰하는 대의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정의롭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이시며 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의 권세의 날은 그가 그 권세를 행사하는 날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그의 승천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가 그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함과 의로움의 제사장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시작하여 그의 통치를 확장하시는 날에 이 막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영을 부어 주셨고 그의 군대는 희고 의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새벽의 자궁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놀라운 은유입니다.

나는 새로운 시대가 이 헌신적인 군대를 탄생시킨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옛 시대의 어둠이 지나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은 마치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사실, 교회의 각 세대의 문제는 나에게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제가 가르칠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매년 9월 개학 첫 주에 새로운 학급이 오는데, 그들은 같은 정신으로 왔습니다. 학생들은 같은 정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것은 마치 아침 이슬과도 같았고 신비로웠습니다. 저들은 어디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마다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밤 뒤의 이슬을 생각할 때 미가서에 나오는 이슬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의 하늘적 기원을 생각합니다. 이슬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군대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의존합니다.

나는 이슬을 생각할 때 무수히 많은 것을 생각한다. 나는 거미줄에 맺힌 이슬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슬 한 방울도 없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당신은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작은 무지개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주님 자신의 아름다움을 반영합니다. 상쾌해요.

클로버 냄새를 맡아보니 천상의 기원이라 신비롭네요. 미가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는 여호와와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니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슬은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슬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은 항상 그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구 세계가 흘러가는 방식으로 인해 우리가 아무리 낙담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슬을 내려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군대에서 그 이슬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나는 Flanders Field에 관한 유명한 Joyce Kilmer의 시를 여기에 가져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랑드르 들판,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 십자가, 줄, 줄 사이에 우리 자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여전히 용감하게 노래하는 종달새들의 노래가 아래의 총들 사이에서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살았고, 새벽을 느꼈고, 노을을 보고, 사랑하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플랑드르 들판에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시를 낭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과의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실패한 손에서 당신에게, 우리는 당신의 손이 그것을 높이 들 수 있도록 횃불을 던집니다. 만일 너희가 죽는 우리에게 믿음을 어긴다면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할 것이다. 비록 플랑드르 들판에서 강아지들이 자라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위해 죽었고 우리가 자유를 위해 기꺼이 싸울 수 있도록 새로운 세대에게 횃불을 던졌고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날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가 자유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방식을 두려워합니다. 2연을 보면, 영원한 제사장직으로 시작하여 왕의 영원한 승리로 끝난다.

당신은 영원한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를 향한 행진에서 시냇물과 길에서 마실 것입니다. 서론은 그가 맹세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맹세로 시작됩니다.

예언과 약속과 맹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예언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는 예언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을 예언하고 백성이 악을 행하면 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재앙을 예언하고 백성이 선을 행하면 재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도덕적 법칙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들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거나 배교할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항상 예언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심판 예언의 의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글쎄,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것의 의도는 회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가가 시온이 밭처럼 경작되어 완전히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히스기야는 올바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심판을 돌이켰습니다.

이제 미가는 결코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면, 회개하면 그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이해한 가정, 추정이었습니다.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요나가 40일 동안 설교하면 니느웨는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제였다. 이는 항상 조건부인 예언 문학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맹세하신 것은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Richard Pratt가 훌륭하게 개발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그의 참고문헌을 인용합니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를 기리기 위해 매우 친절하게 쓰여진 수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의 조건성과 맹세의 무조건성에 대한 전체 에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맹세로서 그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 안에서 백성 사이의 통치를 중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낭송한 후에는 당신이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며 그 모든 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 신권보다 앞선 신권이다.

이것이 영원한 신권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개발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은 히브리서인데 나는 그것을 건너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지자의 생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1절의 주님과 다른 단어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그러나 이제 4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하였으니 곧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네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것도 대문자로 해야 합니다. 아도나이(Adonai)는 하나님을 만유의 주(Lord)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결말 1는 탁월함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오른쪽, 즉 권세 있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한 복수의 날에 왕들을 박살내실 것입니다. 왕은 나라들 사이에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내가 말하노니 메시아는 땅과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는 그 계곡을 시체로 채울 것이다. 강조점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 성취될 나라들을 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넓은 땅 위에 흘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집합 단수형이고 지구의 통치자들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 시냇물을 마실 것입니다. 즉, 그는 그의 승리를 완성할 것입니다.

시내는 와디(wadi)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넓은 땅의 사막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하여 그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소생시켜 그의 사명을 완수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 물이 쏟아지는 와디에서 마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나아가는 동안 그 일을 할 것이며 세계 정복에서 승리를 거두며 행진할 것입니다. 가는 길에 술을 마실 예정이고, 기분 전환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래서 저는 사막이나 피로도 폭정을 종식시키려는 그의 열정을 막을 수 없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로마 역사가 리비우스(Livy)의 말을 인용합니다. 로마 이름의 공포는 일단 로마 군대가 도시를 포위하면 어떤 것도 그것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며, 겨울의 혹독함이나 몇 달의 피로도 그것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승리 외에는 끝이 없으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갑작스러운 일격이 소용이 없으면 승리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왕의 사진입니다.

그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행진에서 술을 마실 것이다. 그것은 왕이 어떤 가혹함을 요구하더라도 원기를 회복하고 끝까지 추구하는 모습, 엄청난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머리를 드는데, 이는 그의 승리의 표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위대한 대관식 예식인 시편 110편입니다.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2, 전례적 접근 방식, 대관식 시편, 시편 110편입니다.